



평년보다 더운 봄
유통가
여름맛이 앞당겨
너

metro®

Life

K-바이오
글로벌 시장
판매고 '쑥쑥'
L2



되살아나는 서울

♻️ 성북구·동대문구 '청량공원'

청량공원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걸쳐 있는 거대 녹지 공간으로, 해발 140m의 천장산을 품고 있다. 1940년 3월 12일 개원했고, 1995년 청량근린공원 조성이 계획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공원 규모는 76만 2642㎡에 이른다. 조선 왕릉이 자리해 대부분의 면적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인데다가 산림과학연구를 위해 시험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있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됐다.

▶지난 8일 오후 청량공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공원 내 마련된 '육모지붕'이 없어진 아담한 정자.



청량함 가득한 '녹색 산책로'... 천장산 품은 숲길 거닐다



다채로운 수목이 식재된 청량공원 산책로.

아름다운 자연 보존된 거대 녹지공간
데크 산책로, 어르신 건강마당 마련
강북 일대 한눈에 보이는 전망데크도
조선 20대 왕 경종 잠든 '의릉' 볼거리



천장산(청량공원) 정상에 위치한 전망데크.

◆하늘이 숨겨놓은 곳, 천장산

지난 8일 오후 천장산에 있는 청량근린공원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3번 출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방향으로 354m(6분 소요)를 걸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입구에는 원목으로 만든 키보드 손목 받침대처럼 생긴 나무 팻말이 서 있다. 팻말 안에는 'sb성북 청량근린공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경사가 완만한 나무 데크 계단을 따라 공원이 있는 천장산을 올랐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팔토시와 밀짚모자, 마스크로 무장한 할머니 두 분이 데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공원이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의 산명은 '하늘이 숨겨놓은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연화사의 삼성각 상량문에 의하면 '진여불보의 청정법신이 시방 삼세에 두루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 천장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청량공원에 와 보면 신이 왜 여기를 꼭꼭 감추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다. 휘황찬란한 진분홍색 철쭉과 속고의처럼 생긴 흰꽃이 달린 바위취, 작은 깎잎 모양의 노루오줌, 밥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돌단풍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가우라 등이 층층이 심어져 장관을 이룬다. '나만 알고 싶은 공원'의 목록에 넣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다채로운 수목을 감상하며 데크를 걸었

다. '육모지붕'이 없어진 아담한 정자와 함께 '어르신 건강마당'이 나왔다. 정자는 여섯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시계와 거울이 각각 한 개씩 걸려 있었다. '정자에 강아지를 올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쉬는 곳입니다'라는 안내문을 킁킁거리며 읽은 뒤 주변을 둘러봤다.

건강마당에서 풍류를 즐기던 동네 주민들은 아는 얼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아이고, 드디어 왔네", "왔구먼 왔어" 등의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건강마당은 국내 최초로 조성된 고령자용 테마공원으로, 지난 2008년 어버이날 845㎡ 규모로 개장했다. 팔 돌리기, 어깨 스트레칭 운동 기구 등이 마련됐다.

건강마당을 지나 산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에 흩날리는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하다 보면 등반이 없는 벤치 두 개가 놓인 갈림길이 나온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들어 성북구 방향으로 내려갔다. 참고로 우측 동대문구 방향으로 하산하면 경희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나온다. 벤치가 마련된 작은 쉼터에서 좌측으로 꺾은 뒤 3분 정도를 걸어 천장산 전망데크에 도달했다.

강북 일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부순환도로, 국민대학교, 북한산 형제봉·비봉·보현봉, 동덕여자대학교, 북한산만경대·백운대·인수봉, 오동근린공

원, 북부간선도로, 월곡초등학교, 도봉산 신선대·자운봉·만장봉을 볼 수 있다.

◆이리저리 거닐기 좋은 산책로

짧은 산책 코스가 아쉽게 느껴진다면 의릉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의릉에는 조선의 20대 왕인 경종과 두 번째 왕비 선의 왕후 어씨가 잠들어 있다.

1960년대 초에는 중앙정보부가 능역 내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의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했다고 한다. 이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고, 서초구 내곡동으로 터를 옮기면서 1996년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과거 청량공원 일대에는 의릉과 함께 홍릉이 있었다. 을미사변으로 시해당한 명성황후는 천장산 산줄기 아래인 홍릉 터에 22년간 안장됐다. 명성황후의 무덤은 풍수지리상 불길하다는 이유로 이장돼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고종의 능에 합장됐다.

이외에 함께 가볼만한 시설로는 회전 놀이대·시소·그네 등의 놀이시설물을 갖춘 '돌피어린이공원'과 일반서 16만1062권, 다문화 도서 1만2793권, 큰활자책 697권, 점자도서 504권, 오디오북 177권을 포함해 총 21만3864개 자료를 소장한 성북정보도서관이 있다.

성북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문화재 구역 일부를 개방, 의릉~돌피어린이공원~성북정보도서관을 잇는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뉴진스, 스포티파이스 K팝 최단 10억 스트리밍 돌파로 '기네스' 등재
▲에스파 미니 3집, 첫날 137만장 판매로 K팝 걸그룹 최다 /사진 뉴시스

▲박칼린 표절 의혹 제기한 '와일드 와일드' 공연 금지 가처분 기각
▲문체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 시행



▲선수촌 음주운전 사고낸 김민석·정재웅 벌금형
▲높이뛰기 우상혁, 전국 육상 대회서 2m32로 우승 /사진 뉴시스